

# 글로벌 한상네트워크의 활동 및 발전 방안\*

선 봉 규 (전남대학교)  
(polisun@hanmail.net)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한상지도자대회, 세계한상대회 등 글로벌 한상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자료와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재외동포재단의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사회는 정부기관보다 먼저 경제단체를 결성하여 한상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각각 1996년과 1993년부터 한상대회를 개최해왔다. 둘째,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2002년에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세계한상대회는 점차 한상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과 중국, 일본 등 몇 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상과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한상네트워크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상대회를 4년에 한 번씩이라도 세계한상 통합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8925665).

둘째, 아시아 한상대회, 중남미 한상대회, 아프리카·중동 한상대회, 미주한인상공인대회 등 지역별 한상대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별 한상대회는 한상과 한상 간, 한상과 국내기업 간, 모국과 거주국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상넷 등 온라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의 한상들이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주제어 : 한상, 한상네트워크,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한상지도자대회, 세계한상대회

## I. 머리말

오늘날 우리는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구화의 확산으로 자본과 노동, 그리고 인간의 이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이주의 일상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디아스포라(diaspora)이다.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책적,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디아스포라들은 상대적으로 다문화적, 다언어적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어 모국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수 있다(전형권 2005, 64). 또한 디아스포라는 거주국에서 송금을 통해 모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신지원 2015, 8). 디아스포라들이 모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는 화상(華商)을 들 수 있다. 화상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현대 중국 건설에 있어서 중국이 유치한 해외직접투자의 2/3를 담당했을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는 IT 등 신경제산업에서 중국경제가 필요한 고급두뇌 및 기술의 공급도 화상들이 상당수 기여하고 있다(임채완 외 2017, 3).

한국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 된 것은 1997년 10월 30일, 재외동포재단<sup>1)</sup> 설립과 1999년 9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이행관련 정부기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재외동포과,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재외동포재단은

1) 재외동포재단의 설립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6년 5월, 제1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재단 설립을 합의; 1997년 3월, 재외동포재단법 공포; 1997년 7월, 재외동포재단법 시행령 공포 및 발효;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 발족 순이다. 출처: <http://bit.ly/2PuOp17> (검색일: 2018. 07. 09.).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sup>2)</sup> 아울러 학계에서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안 제시,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학문적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정부기관은 재외동포와 모국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외동포재단은 해외에 산재해 있는 재외동포 한상들을 모국에 초청하여 한상과 모국간의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한상대회를 2002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해마다 수천 건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며 한상기업과 국내기업이 윈-윈(win-win)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한상대회가 단순히 친목 도모하는 활동에 그치고 있거나 한상의 모국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임채완 외 2017, 5).

이 연구는 재외동포 중에서 ‘해외 거주 한민족 상인’, 한상(韓商)들이 중심이 되어 세계적 규모의 한상대회가 어떻게 치러지고 있는지, 대회의 주요 활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향후 한상네트워크의 발전방안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상에 관한 연구는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sup>3)</sup> 이 연구에서는 세계한상대회 이외에도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세계한상지도자대회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와 함께 한상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각 단체(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재외동포재단)의 홈페이지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재외동포의 현황과 한상네트워크 현황에 대해 정리하고, 3장에서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한상지도자대회, 세계한상대회 등 사례연구를 통해 대회의 현황과 주요 활동을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한상네트워크의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 5장에서는 연구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

2) 재외동포재단은 기획조사실, 경영지원부, 동포단체지원부, 홍보문화부, 교육지원부, 차세대사업부, 한상사업부, e-한민족사업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단의 주요 사업은 재외동포단체 지원, 한글학교 육성 및 지원, 차세대 재외동포 지원, 한상네트워크 구축, 모국문화 보급, 조사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 <http://bit.ly/2PovaQu> (검색일: 2018. 07. 09.).

3) 한상대회 관련 선행연구는 김성주, 이선영(2007); 김재기(2010, 2013); 임영언, 허성태(2009); 임영언, 이장섭(2012); 임채완, 리단(2005); 제주발전연구원(2004); 전형권(2005) 등이 대표적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재외동포와 한상네트워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로 구성된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거나(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외교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재외동포는 총 7,430,688명이다(외교부 2017). 지역별 거주 현황을 보면, 동북아시아(중국, 일본)에 3,366,656명, 북미(미국, 캐나다)에 2,733,194명, 유럽에 630,693명, 남아시아태평양에 557,791명, 중남미에 106,794명, 중동에 27,707명, 아프리카에 10,853명이다. <표 1>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외동포는 중국,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 몇 개국에 집중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재외동포 거주 현황

(단위: 명)

지역	거주자격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1,049,209	1,354,330	260,323	2,672,202	4,758,486	7,430,688
동북 아시아	중국	6,620	275,338	62,056	349,406	2,198,624	2,548,030
	일본	379,940	57,718	15,438	453,096	365,530	818,626
	소계	386,560	333,056	77,494	802,502	2,564,154	3,366,656
북미	미국	416,334	546,144	73,113	1,035,591	1,456,661	2,492,252
	캐나다	57,137	28,861	25,396	111,394	129,548	240,942
	소계	473,471	575,005	98,509	1,146,985	1,586,209	2,733,194
유럽		30,258	56,243	36,172	122,673	508,020	630,693
남아시아태평양		104,070	343,452	46,154	496,606	61,185	557,791
중남미		52,412	15,234	563	68,209	38,585	106,794
중동		114	23,802	615	24,531	176	24,707
아프리카		2,342	7,538	816	10,696	157	10,853

자료: 외교부(2017, 28)

거주 자격별로 보면, 외국국적동포가 4,758,486명으로 전체의 6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외국민은 2,672,202명으로 36.0%이다. 특히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조선족)가 86.3%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재외국민은 13.7%이다. 미국의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가 58.4%이며, 재외국민은 41.6%이다. 일본의 재외동포는 재외국민이 55.4%, 외국국적동포가 44.6%로 재외국민이 좀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한상의 개념은 2002년 제1차 세계한상대회에서 발표한 ‘한상현장’에 따르면, ‘해외 거주 한민족 상인’의 줄임말로, 세계 각지에서 제조업·상업·무역·IT·벤처·금융·과학기술·법조·언론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경제인을 총칭한다(재외동포재단 2002).<sup>4)</sup> 한상이 한국사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중국의 재외동포, 즉 화교의 모국투자가 집중되어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서부터이다. 이와 같이 지구화가 심화되는 글로벌시대에 재외동포나 한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모국의 발전에 필요한 민족자산으로써 주목받게 되었다(임영언·허성태 2009, 271).

한상네트워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연계를 맺고 무역과 금융거래를 하는 한상간의 경제공동체를 의미한다(전형권 2005, 68). 현재 오프라인 공간에서 구축되어 있는 한상네트워크는 크게 세 개 기관에서 주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기관은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등이다. 글로벌 차원의 한상네트워크는 재외동포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경제단체가 주관하여 이루어져왔다.

(사)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모국의 경제발전과 무역 증진 및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고, 글로벌 한민족 경제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세계 한인 경제인들이 결성한 단체이다.<sup>5)</sup> 창립 당시 16개국 101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으며, 현재는 74개국 147개 지회, 7,000여명의 정회원과 20,000여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여 최대의 재외동포 경제단체로 성장하였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96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KOREAN NETWORK’ 추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해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제1차 KOREAN NETWORK’ 출범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매년 10월경에 협회의 회원, 차세대 및 국내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1993년 2월 19일 재외동포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

4)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의 요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인들도 한상으로 보고 있어, 점차 한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5) 세계한인무역협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지원으로 조직된 후, 1994년 '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의 사단법인이 되었다. 협회의 명칭은 1981년 출범 당시 '해외한국교포무역인연합회'였으며, 1994년 10월 1일 '세계한인무역협회'로 변경되었다. 본부사무소는 출범 당시 미국 LA에 소재했으나, 1990년 12월 15일에 서울(KOTRA)로 이전했다.

었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한인 상공인과 경제 단체 및 한인 단체의 유기적인 단합으로 모국경제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협조, 친목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모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 및 세계경제 속에서 한인의 역할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세계 68개국 246개 재외동포 상공인 단체 및 한인회 등을 조직화하여 글로벌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1993년부터 매년 ‘세계한상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발전을 위한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해오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한상네트워크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1991년 싱가포르의 리관유(李光耀)총리가 주도하여 설립한 ‘세계화상총회’의 성공적 개최에서 비롯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인무역협회와 미주한인상공인단체총연합회 등의 경제단체에 후원하여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네 차례의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참여 단체 간의 이견, 재외동포단체의 재정 및 행정력 부족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재외동포재단 주도의 대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외동포재단은 산발적인 재외동포단체들의 여러 대회들을 ‘세계한상대회’의 이름으로 통합하여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구축을 통해 오프라인(off-line) 대회의 단속성을 극복함으로써 대회 개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재외동포재단 2002, 1).

재외동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한상네트워크 사업은 동포 기업인 상호 간 및 동포 기업인과 국내기업인을 상호 연결하여 상공, 무역, IT, 벤처,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민족 경제인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한상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국내외동포 경제인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비즈니스 차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상네트워크 구축은 재외동포 기업인 및 국내 기업인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재외동포 기업인들은 다른 지역의 재외동포 기업인 상호 간 비즈니스 정보교류로 시장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는 국내 시장의 파트너를 확보하고 시장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내 기업인들에게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기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해외시장 진출시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게 된다. 궁극적으로 한상네트워크는 재외동포의 거주국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모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한민족 전체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2. 선행연구검토

현재까지 진행된 한상관련 연구동향은 크게 한상네트워크, 특정 지역 기업 및 네트워크,

세계한상대회 및 월드옥타, 디아스포라, 한상기업의 특성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김용준·채명수·엄금철·이민환 2018, 220). 이 연구에서는 세계한상대회(월드옥타 포함)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sup>6)</sup>

<표 2> 한상대회관련 주요 연구 성과

연구자	연도	논문 제목
김성주·이선영	2007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5차 및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김재기	2010 2013	글로벌시대 '세계한상대회'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세계한상대회 10년: 성과와 발전 방안
윤영곤	2008	재외동포를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World-OKTA 사례를 중심으로
임영언·이장섭	2008	세계한상의 세대교체와 기업승계에 따른 차세대 한상대회 전망 고찰
임영언·이장섭·지충남	2014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 운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고찰
임채완	2005	화상과 한상네트워크 구조와 운영실태의 비교 분석
임채완·리단	2005	초국가 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오프라인 사례분석: 화상대회와 한상대회를 중심으로
전형권	2005	글로벌 한상네트워크 사업의 비판적 분석: 옥타대회와 한상대회를 중심으로
제주발전연구원	2004	세계한상대회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재외동포재단	2002-2017	제1차~제16차 세계한상대회 결과 보고서

<표 2>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상대회 관련 연구는 한상대회의 성과와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한상네트워크 구축, 한상을 활용한 시장개척, 화상대회와 비교, 차세대 한상대회 등의 주제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재외동포재단이 주도하는 세계한상대회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뿐만 아니라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에서 개최하

6) 한상대회 이외 한상관련 전반적인 연구동향은 김용준, 채명수, 엄금철, 이민환(2018)의 연구를 참조할 것.

고 있는 세계한상지도자대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Ⅲ. 글로벌 한상네트워크의 현황과 활동

#### 1. (사)세계한인무역협회 -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의 목적은 모국과의 무역증진에 기여하고, 모국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이익증진을 도모하고, 지구촌 해외한인 경제네트워크를 결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World-OKTA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상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World-OKTA의 주요 한상네트워크 활동은 크게 세계대표자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지역경제인대회,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등이 있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대회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이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개최 목적은 국내외 경제인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대내외 위상 제고, 해외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역량강화를 통한 핵심동력 구축, 해외한인 네트워크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 차세대 글로벌 창업·성장 육성 지원 강화 등에 있다. 역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크게 세 가지 명칭으로 진행되어 왔다. 출범 초기(1996-1997)에는 'KOREAN NETWORK'라는 명칭으로 대회를 개최했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는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2008년 포항에서 개최된 13차 대회에서부터 현재의 대회 명칭인 '세계한인경제인대회'를 사용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개최 장소<sup>7)</sup>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개최되고 있다. 국내지역은 서울(6회)이 가장 많았으며, 제주, 부산, 포항, 수원, 경주, 여수, 정선, 창원 등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해외지역은 미국(뉴욕, 시카고, LA 등 3회)이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멕시코,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개최되었다. 대회의 주최기관은 일반적으로 세계한인무역협회와 개최지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개최된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는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등이 공동주최하였다. 대회의 슬로건은 1차대회(1996년)과 2차대회(1997년)에 '21세기를 향한 코리아 경제권 구축'을 사용했으며, 3차대회 이후부터는 '세계속의

7)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홀수 해에는 해외에서 개최하고, 짝수 해에는 모국에 개최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다. 대회의 참가규모는 협회의 상임이사 및 회원, 차세대 등 약 800여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개최지역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되는 제23차 대회는 약 1,200여명(협회 회원 800여명, 창원시 기업 200여명, 해외취업희망자 100여명, 유관기관 100여명 등)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역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최 현황

연도	장소	대회명	대회슬로건
1996 11.12-16	한국 서울	제1차 KOREAN NETWORK 출범대회	21세기를 향한 코리아 경제권 구축
1997 10.9-11	미국 뉴욕	제2차 KOREAN NETWORK 세계한인무역인대회	21세기를 향한 코리아 경제권 구축
1998 10.27-31	한국 서울	제3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1999 10.8-12	미국 시카고	제4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0 10.29-11.1	한국 서울	제5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한민족 시대를 열자
2001 11.9-11	미국 LA	제6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2 10.7-8	한국 서울	제7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3 10.5-8	캐나다 토론토	제8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4 10.29-30	한국 제주	제9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5 9.7-11	멕시코 멕시코시티	제10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6 11.3-4	한국 부산	제11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7 10.25-29	호주 시드니	제12차 해외한민족경제공동체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8 10.24-27	한국 포항	제1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09 10.21-24	한국 서울	제14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연도	장소	대회명	대회슬로건
2010 10.25-28	한국 수원	제1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11 10.20-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1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12 10.11-15	한국 경주	제1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13 10.23-26	인도네시아 발리	제1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14 9.29-10.2	한국 여수	제1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15 10.18-21	싱가포르	제20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16 10.4-7	한국 정선	제21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17 10.30-11.2	한국 서울	제22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2018 10.29-11.1	한국 창원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속의 한민족, 하나되는 경제권

출처: 세계한인무역협회 홈페이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공식행사, 비즈니스 & 상담 프로그램, 회의 및 포럼, 해외시장 진출, 청년 취업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제23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주요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공식행사	개회식, 폐회식
비즈니스 & 상담 프로그램	투자환경 설명회, 수출 진출 맞이 제품 설명회,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회의 및 포럼	확대회장단(세계 지회장) 회의, 통상위원회 회의, 대륙별 네트워킹 간담회, 차세대 포럼
해외시장 진출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략방안 설명회
청년 취업	글로벌 취업 컨설팅, 청년 해외진출 세미나, 글로벌 잡 페어

위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내 청년들이 해외 한인기업에서

인턴을 하면서 취업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취업 프로그램이다.<sup>8)</sup> 아울러 매년 각국 지회에서 열리는 차세대 글로벌 창업 무역스쿨 또한 국내외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2.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 세계한상지도자대회

(사)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1993년 2월 19일에 재외동포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의 상호발전을 위해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에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1993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세계한상지도자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세계한상지도자대회의 개최 목적은 세계한인 및 세계한상 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한민족네트워크 강화; 세계한인 상공인들의 모국투자 독려 및 세계시장 진출 모색; 역동적인 한인 인재 및 전문인 발굴, 육성, 교류; 세계 각국 한상과 돈독한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협조 상생모색; 대회 개최국가 경제, 문화 교류협력 강화 및 시장개척 교두보 마련 등이다(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2012). 역대 세계한상지도자대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세계한상지도자대회의 명칭은 1993년 9월 18일에 개최된 제1차 세계한인상공인대회 이후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대표자대회, 세계한상대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개최해오다가, 2001년 10월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9차대회에서부터 세계한상지도자대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세계한상지도자대회의 개최 장소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쿠바, 캄보디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해외동포사회의 권익신장과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의 심양과 연변조선족 자치주, 멕시코, 쿠바, 캄보디아 등지에서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2013년부터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sup>9)</sup>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이 박람회 기간 중에 세계한상지도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8) 세계한인무역협회는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육 지원을 위해 2017년 10월 28일에 다문화 대안학교인 ‘해밀학교’와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17/10/29).

9) GTI(Greater Tumen Initiative)는 1992년 유엔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TRADP)에서 출발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몽골 등 5개 회원국이 참여하였다. 2006년에 회원국들은 두만강유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함께하는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체제로 전환했으며, 2009년에 북한이 탈퇴하였다. 강원도는 2012년에 GTI의 실질적 경제협력 추진을 위해 무역투자박람회 개최를 제안하여, 2013년부터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를 개최해오고 있다(김진기 2016, 1).

〈표 5〉 역대 세계한상지도자대회 개최 현황

연도	장소	대회명
1993.09.18	한국, 서울	제1차 세계한상공인대회 (24개국 28개단체 580여명)
1994.09.15	한국, 서울	제2차 세계한상대회 (27개국 32개단체 700여명)
1995.08.31	한국, 서울	제3차 세계한상대회 (27개국 32개단체 2000여명)
1996.08.22	한국, 서울	제4차 세계한상공인총연합회 대표자대회
1997.09.11	한국, 서울	제5차 세계한상대회 (30개국 35개단체 2000여명)
1998.06.02	미국, 뉴욕	제6차 세계한상공인총연합회 대표자대회
1999.05.14	일본, 동경	제7차 세계한상공인총연합회 대표자대회
2000.10.29	한국, 서울	제8차 세계한상공인총연합회 대표자대회
2001.10.31	한국, 서울	제9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02.10.10	한국, 서울	제10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03.10.8	한국, 서울	제11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04.10.22	중국, 북경	제12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05.09.16	한국, 서울	제13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06.08.28	중국, 연변	제14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07.05.04	우즈베키스탄	제15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08.08.27	중국, 연길	제16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09.11.06	멕시코, 쿠바	제17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10.07.05	중국, 심양·단동	제18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11.11.04	캄보디아, 프놈펜·씨엠립	제19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12.10.18	한국, 서울	제20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13.6.9-12	한국, 강릉	제21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14.10.23-26	한국, 강릉	제22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15.10.22-25	한국, 속초	제23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16.10.13-16	한국, 속초	제24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2017.9.20-22	한국, 동해	제25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출처: 세계한상공인총연합회 홈페이지

세계한상지도자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세계한상공인총연합회 총회, 세계한상 모국 투자설명회 및 투자 상담, 모국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해외인턴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세계한상공인총연합회는 2012년 제20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에서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세계한상 드림 아일랜드'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세계한상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세계한상센터' 건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재외동포재단 -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민족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국제 비즈니스 컨벤션이다(한상넷 홈페이지). 세계한상대회의 목적은 전 세계 한인 동포 기업인 상호 간 또는 동포기업인과 국내기업인을 연결하여 한민족 경제인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재외동포재단은 2002년 1월에 재단내에 경제부를 신설하여 한상네트워크 사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2002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세계한상대회가 개최되었다. 제1차 대회는 세계 각지에서 성공한 기업가 (Leading-CEO) 약 40여명이 참석하였고, 재외동포 경제인 852명, 국내경제인 116명 등 총 28개국, 968명이 참가하였다. 제1차 대회 참가자의 특성을 보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들이 전체의 55.8%를 차지했고, 일본지역 한상이 16.0%, 중국지역 한상이 14.6%, CIS지역 한상이 4.1%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제1차 세계한상대회 참가자 현황

국가/대륙별	동포 수		1차대회 참석 동포		동포단체 수 (개) <sup>1)</sup>
	거주인원	비중(%)	경제인	비중(%)	
미국	2,123,167	37.6	475	55.8	1,015
중국	1,887,558	33.4	124	14.6	91
일본	640,234	11.3	136	16.0	276
CIS	521,694	9.2	35	4.1	171
캐나다	140,896	2.5	13	1.5	185
중남미	111,462	1.9	5	0.5	159
동남아	77,366	1.3	14	1.6	106
유럽	73,379	1.2	21	2.5	372
대양주	65,565	1.1	21	2.5	124
아프리카/중동	12,488	0.2	8	0.9	63
합계	5,653,809	100.0	852 <sup>2)</sup>	100.0	2,562

출처: 재외동포재단(2002)

주 1) 동포단체 수는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물론 한인회 등 포함

2) 국내 참가 동포 수 116명 별도

역대 세계한상대회의 개최 현황 및 주요 실적을 보면 <표 7>과 같다. 세계한상대회의 주최기관을 보면, 시기적으로 약간 다르다. 2002년 제1차 대회부터 제14차대회까지 주최기관은 재외동포 경제단체이며, 주관은 재외동포재단과 지자체, 매일경제신문, MBN 등이었다. 2016년 제15차 대회에서부터 주최기관이 재외동포재단으로 변경되었다. 대회의 개최 장소는 국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2002년 1차대회부터 2017년 16차 대회까지 개최된 장소를 보면, 부산이 4회로 가장 많이 유치했으며, 서울과 제주가 각각 3회, 광주, 대구, 인천, 경기도 고양, 경북 경주, 경남 창원 등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 규모는 2006년 5차대회까지 해외 참가자, 즉 한상이 국내 참가자보다 많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 6차대회부터는 한상의 참여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참여는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 1차대회에서 한상은 852명이 참가하여 전체의 88%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참가자 수를 기록한 2017년 16차대회에서 한상은 817명으로 전체의 16.6%를 기록했다.

<표 7> 역대 세계한상대회 개최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참가규모	실적	특징
1차 대회	02.10.8(월) ~10.10(수)	서울(소공동) 롯데호텔	28개국 968명 (해외 852, 국내 116)	3천만달러 투자유치	네트워크 기반조성
2차 대회	03.10.6(월) ~10.8(수)	서울(삼성동) COEX	40개국 1,263명 (해외 937, 국내 326)	1:1 미팅 175건 기업전시 20부스	비즈니스 창출 기반조성
3차 대회	04.10.26(화) ~10.28(목)	제주도 ICC	37개국 1,606명 (해외 937, 국내 669)	1:1미팅 445건 기업전시 129부스 (8천만불 상담)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 지자체 참여
4차 대회	05.9.13(화) ~9.15(목)	경기도(일산) KINTEX	36개국 1,517명 (해외 697, 국내 820)	1:1미팅 561건 기업전시 400부스 (187백만불 상담)	업종별 비즈니스 교류강화/ 한상특화전 개발
5차 대회	06.10.31(화) ~11.2(목)	부산(해운대) BEXCO	39개국 2,285명 (해외1,214, 국내1,071)	1:1미팅 304건 기업전시 367부스 (358백만불 상담)	업종별 단체간 MOU 다수체결
6차 대회	07.10.31(수) ~11.2(금)	부산(해운대) BEXCO	37개국 2,993명 (해외1,146, 국내1,847)	1:1미팅 383건 기업전시 419부스 (376백만불 상담)	업종별 단체간 MOU 다수체결/ 한상단체 역할 강화

구분	기간	장소	참가규모	실적	특징
7차 대회	08.10.28(화) ~10.30(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35개국 3,340명 (해외1,337, 국내2,003)	1:1미팅 577건 기업전시 385부스 (564백만불 상담)	단체간 MOU 체결, 개최지생산증대효과 176억
8차 대회	09.10.27(화) ~10.29(목)	인천 송도컨벤시아	42개국 3,505명 (해외1,190, 국내2,315)	1:1미팅 658건 기업전시 521부스 (418백만불 상담)	단체간 MOU 체결, 개최지생산유발효과 887억
9차 대회	10.10.19(화) ~10.21(목)	대구 엑스코(EXCO)	43개국 3,275명 (해외975, 국내2,300)	1:1미팅 218건 기업전시 452부스 (256백만불 상담)	단체간 MOU 체결, 개최지생산유발효과 1,716억
10차 대회	11.11.2(수) ~11.4(금)	부산 BEXCO	40개국 4,010명 (해외1,002, 국내3,008)	1:1미팅 620건, 기업전시 598부스 (260백만불 상담)	단체간 MOU 체결, 지역·업종별 한상네트워크 확산
11차 대회	12.10.16(화) ~10.18(목)	서울 COEX	47개국 3,222명 (해외965, 국내2,257)	1:1미팅 416건, 기업전시 392부스 (167백만불 상담)	업종별 한상네트워크 및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 크 강화
12차 대회	13.10.29(화) ~ 10.31(목)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5개국 4,318명 (해외924, 국내3,394)	상담건수 5,221건 기업전시 463부스 (5억17백만불 상담)	국내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YBLN 활동 구체화
13차 대회	14.9.24(수)~ 9.26(금)	부산대BEXCO 제 2전시장	42개국 3,712명 (해외773, 국내2,939)	상담건수 4,538건 기업전시 502부스 (120백만불 상담)	지역별 업종별 세미나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강화
14차 대회	15.10.13(화) ~10.15(목)	경북 경주 경주화백컨벤션	44개국 3,799명 (해외812, 국내2,987)	상담건수 4,878건 기업전시 260부스 (112백만불 상담)	지역별 산업별 세션 강화 /한상기업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시행
15차 대회	16.9.27(화)~ 9.29(목)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56개국 3,542명 (해외984, 국내2,558)	상담건수 6,995건 기업전시 260부스 (118백만불 상담)	글로벌한상드림 설립, 한상장학금수여, /개최지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202억
16차 대회	17.10.25(수) ~ 27(금)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	59개국 4,924명 (해외 817, 국내 4,107)	상담건수 959건 기업전시 9,554건 (188백만불 상담)	국내외 경제인의 노하우 전달 /개최지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187억

출처: 재외동포재단(2017); 한상넷 홈페이지

세계한상대회의 주요 프로그램은 크게 공식행사, 비즈니스 & 상담 프로그램, 회의 및 포럼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15차 세계한상대회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제15차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공식행사	개회식 및 기조강연, 한상의 밤, 폐회식 등
비즈니스 & 상담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전시회: 국내외 동포 경제인 상호간 실질적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시키는 한상 글로벌 마켓플레이스</li> <li>- 일대일비즈니스미팅: 한상과 한상 간, 국내기업과 한상간의 비즈니스 상담 및 인적교류의 기회 제공</li> <li>- 한상 비즈니스 플랫폼: 투자유치 설명회 및 국내 주류 생산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li> </ul>
회의 및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딩 CEO 포럼: 세계적으로 성공신화를 일궈낸 한상과 지식공유의 장-</li> <li>- 영 비즈니스 리더 포럼(YBLF): 차세대(만 45세 이하) 한상 발굴 및 국내외 기업인 간 네트워크 구축 활동</li> <li>- 비즈니스 네트워킹 세미나: 지역별, 업종별 한상기업 사례 발표</li> <li>- 밉글링: 한상대회 참가자 간 교류확대를 통한 한상네트워크 활성화</li> <li>- 한상&amp;청년, Go Together!: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취업박람회</li> </ul>

세계의 한상들은 거주국사회에서 주류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기 때문에 신분이나 경제적 상승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된다. 따라서 한상들은 주류사회에서 진입장벽이나 차별의 소지가 적은 영세 자영업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하는 특성을 보인다(임영언·허성태 2009, 271). 세계 한상들이 진출한 기업의 업종별 현황에 대해, 간접적이거나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기업을 살펴보면 예측해 볼 수 있다. <표 9>의 2013년 제12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보면, 비즈니스·서비스업종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섬유제품·액세서리가 95건, 식음료·농산품이 54건, 의약·건강·환경이 29건, 컴퓨터·전자제품이 25건 등으로 나타났다.

〈표 9〉 제12차 세계한상대회 참가 기업의 업종별 현황

업종	기업 수	업종	기업 수
의류, 섬유제품, 액세서리	95	가정용품, 사무용품	7
비즈니스, 서비스	115	화학물질, 플라스틱, 원료	9
식음료, 농산품	54	금속, 광물	7
의약, 건강, 환경	29	공예품, 선물용품	4
미용/세탁/생활용품	1	전기, 조명	9
차량, 운반기계	10	완구, 게임, 스포츠	3
컴퓨터, 전자 제품	25	기타, 의료서비스	1
공구, 기계류	7	기타	183

자료: 재외동포재단(2012)

## IV. 글로벌 한상네트워크의 발전 방안

### 1. 통합대회 개최 필요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의 경제단체인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세계한상지도자대회와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최하는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그리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세계한상대회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주최하는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가하는 한상 또한 차이를 보인다. 재외동포 경제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한상대회는 단체의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하고 있는 반면, 정부기관인 재외동포단체에서 주최하고 있는 한상대회는 모든 재외동포 기업인들에게 열려있다.

그러나 세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한상들은 전체는 아니지만 중복 참가하는 경향이 있다. 세계한상대회는 글로벌 한상들의 비즈니스 축제가 되어야 하지만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틀 속에 갇혀버린 연례행사 수준에 머물고 있어 참가자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김재기 2013, 173). 또한 비슷한 시기에 한상대회가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행사가 되고 있다(중앙일보 VANCOUVER 2018/05/10). 특히 세계한상대회와 세계한인경제인대회의 경우는 개최 시기, 행사 취지와 목적, 대회 프로그램, 참가자 등 여러 면에서 서로 유사,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부의 견해이기는 하지만, 세계한상대회에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는 세계한인무역협회가 세계한상대회를 주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재기 2010, 335). 즉 세계한인무역협회는 현재 74개국 147개 지회, 7,000여명의 정회원과 20,000여명의 차세대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현재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들이 공동으로 세계한상 통합 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다시 말해, 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존 대회는 유지하되, 4년에 한 번씩 세 기관이 공동주관하는 한상대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한상대회의 통합운영은 개최 시기나 중복 참가자, 유사 프로그램, 예산의 중복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회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sup>10)</sup> 아울러 세계한상 통합대회는 지역별로 순환하여 개최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순환 개최는 세계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과 모국간의 민족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모국과 거주국 간의 교류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모국 및 한상의 제품들을 홍보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18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제17차 세계한상대회의 대회장으로 박기출 세계한인무역협회의 회장이 선임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평가된다. 왜냐하면 세계한상대회의 대회장은 대회 홍보, 프로그램 구성, 행사 주관기관과의 유대 관계 등 대회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8/05/10). 따라서 이번 제17차 세계한상대회를 기점으로 세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세계한상 통합 대회를 위한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2. 지역별 한상대회의 활성화

세계한상대회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재외동포 인구 규모나 경제활동이 왕성한 몇 개 지역의 한상들이 다수 참가함으로써 소외지역의 한상들의 입지가 약하게 되고, 특히 세계한상대회가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 맞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김재기 2013, 715).

이러한 맥락에서 2010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는 지역별 한상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대회로 평가할만하다.

10)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인의 날(매년 10월 5일) 기념식은 각각 2000년과 2007년에 별도로 대회를 개최해왔다. 2014년부터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세계한인의 날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강창일 의원실).

이 대회는 중국 심양시 인민정부, 대한민국주선양총영사관, 중국한국상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양한국상회가 주관하였다. 협력주관으로는 요녕성 인민정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한국 재외동포재단,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세계한인무역협회 등 중국, 한국, 재외동포 단체 등이 참여하였다. 이 대회는 세계 한상들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한민족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세계 경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이해와 투자 및 교역의 기회 제공, 세계한상들의 대중국투자를 통한 중국내 한민족 경제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2010 중국 글로벌 한상대회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Business & Friendship	한-중 BIZ 교류회, 중국진출기업 성공사례 발표회, 한-중 발전전략 포럼, 한-중 100강 기업가 교류회, 한국 투자설명회, 중국기업 한국 IPO설명회, 한-중 프랜차이즈 산업 교류회, 심양 경제발전 투자 설명회, 한-중 현대건축산업 교류회, 한-중 장비제조업 교류회, 한-중 하이테크놀로지산업 교류회 등
Exhibition & Concert	한-중 우수상품 전시회, 한-중 우수상품 판매 교류회, KBS 열린음악회
Culture & Tour	한식 세계화 축제, 한국음식 전시회, 한-중 미술작가 교류전, 한국영화 상영제, 한국유학 박람회, 한-중 태권도 대회, 한-중 테니스대회 등

또 다른 지역별 한상대회의 대표적인 행사로는 2007년 조직된 아시아한인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동남아 한상대회’이다. 동남아 한상대회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 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아시아한인총연합회는 총회와 함께 동남아 한상대회를 개최해오다가 2014년 대회에서 아시아한인총연합회 총회는 아시아한인회장대회로 변경하고, 동남아 한상대회는 아시아한상대회로 변경하였다(월드코리아 2017/05/24). 아시아한상대회는 2013년에 태국 방콕, 2014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2015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2016년에 베트남 다낭, 2017년에 미얀마 양곤에서 개최되었으며, 2018년 올해에는 7월 3일부터 6일까지 몽골 울란바트로에서 개최되었다.

중남미 한상대회는 2004년 설립된 중남미한상연합회가 독자적으로 2012년부터 기획해 온 대회로써, 2015년 제1차 대회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2016년 2차 대회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017년 3차 대회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4차 대회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파라과이 시우단 델 에스페시에서 개최된다(재외동포신문 2018/06/26.). 중남미 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과 KOTRA 등의 후원을 받아 개최되고 있다. 아프리카·중동지역에서는 2016년에 아프리카

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가 발족되었다. 아프리카·중동한상총연합회의 출범은 무엇보다 아프리카·중동지역의 한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세계한상대회를 비롯 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간의 비즈니스 정보교류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의 주관과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미국에서 최초로 한상대회가 개최되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2018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텍사스에서 기업인 230명이 참가하여 '제1회 미주 한인상공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미주 한인상공인들의 기업 네트워킹과 비즈니스 교류활동, 한-미 양국의 우주기업 사례 발표, 친선 골프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YTN 2018/05/19).

이와 같이 지역별 한상대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공통점이 많은 역내 회원들끼리 비즈니스 정보교류의 창구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 한상대회는 지역 내 한상간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뿐 아니라 거주국 기업과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모국과 거주국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 3. 온라인 한상네트워크의 활성화

세계 180여 개 국가에서 정착하여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상들을 네트워킹 하는데 온라인 공간은 매우 유용하다. 재외동포재단은 2002년에 오프라인 대회의 단속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구축하여 세계한상대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재외동포재단은 2010년 6월 30일에 재단 내 세계한상정보센터<sup>11)</sup>를 개소하고, 사이버 한상넷 웹사이트(www.hansang.net)를 구축하였다.

한상넷은 온라인 공간에서 한상들이 오프라인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소통하는 창구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한상넷의 대표적인 서비스는 기업DB와 1:1 비즈니스 매칭, 사이버전시관 등이다. 한상넷에 등재된 기업 수는 현재 1만 4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서 국내기업은 5,896건(42.0%)으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은 3,182건(22.6%), 중국은 1,796건(12.8%), 일본은 1,175건(8.4%), 호주 265건(1.9%), 캐나다 238건(1.7%), 독일 133건(0.9%), 아르헨티나 94건(0.7%), 브라질 91건(0.7%), 러시아 69건(0.5%), 카자흐스탄 63건(0.4%), 영국 35건(0.2%) 등이다. 1:1 비즈니스 매칭은 한상과 한상 간, 국내기업과 한상간의 비즈니스 상담 및 인적교류의 기회를

11) 재외동포재단 내 세계한상정보센터는 2011년에 경제사업팀과 통합되어 세계한상센터로 변경되었고, 2014년에 한상사업부로 변경되었다.

제공하는 한상넷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비즈니스 매칭의 거래 희망 국가 현황을 보면, 한국이 276건, 중국이 123건, 일본이 79건, 베트남이 45건, 호주 27건, 인도네시아 25건, 캐나다 20건, 아르헨티나 18건, 대만 15건, 말레이시아 7건 등이다(한상넷 홈페이지). 이와 같이 한상넷에 등록된 기업이나 1:1 비즈니스 매칭 기업들은 주로 한국의 기업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민족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플랫폼으로써 한상넷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상넷의 여러 서비스 중 '1:1 비즈니스 매칭'이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화면이 뜨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라인 한상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이나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세계의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상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 정보를 교류하고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한상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오늘날 국제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구화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초국적 이동이 일상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화상, 인상 등 글로벌 디아스포라의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면서 세계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민족자산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2002년부터 재외동포 기업인, 즉 한상과 모국간의 경제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적 규모의 한상네트워크-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세계한상지도자대회, 세계한상대회-의 현황과 활동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한상네트워크의 발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내용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사회는 정부기관보다 먼저 경제단체를 결성하여 한상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대표적인 재외동포 경제단체인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각각 1996년과 1993년부터 한상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둘째, 정부기관인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계한상대회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한상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한상대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 개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양한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상과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글로벌 한상네트워크의 범위도 몇 개 국가에 집중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상네트워크의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여러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상대회를 4년에 한 번만이라도 세계한상 통합대회를 개최하고, 개최 지역은 한국을 포함하여 지역별로 순환하는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시아 한상대회, 중남미 한상대회, 아프리카·중동 한상대회, 미주 한인상공인 대회 등 지역별 한상대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역별 한상대회는 한상과 한상 간, 한상과 국내기업 간, 모국과 거주국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하는 주요 기업들은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등 몇 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을 포함하여 세계한인무역협회,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세계의 한상들이 상호 간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가는데 필수적인 온라인 한상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화교, 인교, 유대인 네트워크에서 확인되듯, 글로벌시대 재외동포는 모국의 발전 및 국력을 강화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되고 있다. 특히 한상네트워크는 740만 재외동포 사회의 핵심 역량이다. 이제 한상네트워크는 단순히 친교 활동의 장이 아니라 모국과 재외동포, 모국과 거주국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한국정부와 재외동포 경제단체, 한상들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투자환경을 홍보하고, 무역상담회를 개최하고, 세계한상의 자본을 유치하는 장이 되는 세계한상대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 김성주·이선영. 2007. 세계한상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제5차 및 제6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Economoc Issue 3, 1-38.
- 김용준·채명수·엄금철·이민환. 2018. 한상기업의 문헌연구와 향후 연구방향. KB R 22(2), 217-242.
- 김재기. 2010. 글로벌시대 '세계한상대회'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한국동북아논총 57, 319-343.
- 김재기. 2013. 세계한상대회 10년: 성과와 발전 방안. 재외한인연구 29, 153-186.
- 김진기. 2016.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성과와 과제. 「정책메모」 587, 1-13.
- 신지원. 2015. 국제이주와 발전의 연계담론에서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디아스포라연구 9(2), 8-36.
- 외교부. 2017. 재외동포정책 현황. 외교부
- 윤영근. 2008. 재외동포를 활용한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World-OKTA 사례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2(2), 53-76.
- 임영언·이장섭. 2012. 세계한상의 세대교체와 기업승계에 따른 차세대 한상대회 전망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62, 173-191.
- 임영언·이장섭·지충남. 2014. 세계한상대회 프로그램 운영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70, 301-320.
- 임영언·허성태. 2009. 세계한상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한 한민족공동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3, 369-288.
- 임채완. 2005. 화상과 한상네트워크 구조와 운영실태의 비교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15(3), 117-139.
- 임채완·리단. 2005. 초국가 민족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오프라인 사례 분석: 화상대회와 한상대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3(2), 219-241.
- 임채완 외. 2017. 미주지역 한상의 모국진출 현황조사. 재외동포재단.
- 전형권. 2005. 글로벌 한상(한상) 네트워크 사업의 비판적 분석: 옥타대회와 한상대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36, 63-86.
- 재외동포재단. 2002. 제1차 세계한상대회 결과보고서.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 2011. 제11차 세계한상대회 프레스킷. 재외동포재단.
- 재외동포재단. 2013. 2013 한상기업 디렉토리. 재외동포재단.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http://www.law.go.kr)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http://www.alio.go.kr/home.do>
- 세계한인무역협회 [www.okta.net](http://www.okta.net)
-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hansangnet.org/index.html](http://hansangnet.org/index.html)
-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http://www.yonhapnews.co.kr/)
- 월드코리아 <http://www.worldkorean.net/>
- 재외동포신문 [www.dongponews.net/](http://www.dongponews.net/)
- 재외동포재단 [www.okf.or.kr](http://www.okf.or.kr)
- 중앙일보 VANCOUVER [http://www.koreadaily.com/index\\_local\\_branch.html?branch=VA](http://www.koreadaily.com/index_local_branch.html?branch=VA)
- 한상넷 [www.hansang.net](http://www.hansang.net)
- YTN [www.ytn.co.kr](http://www.ytn.co.kr)

● 투고일: 2018.08.02. ● 심사일: 2018.08.03. ● 게재확정일: 2018.08.12.

## **Global Korean Business Network: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Sun Bongky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ain activities of the global Korean business networks, such as the World-OKTA (Overseas Koreans Traders Associations) Convention, the World Korean Business Leaders Convention and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d also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Existing research and relevant data from the homepages of the World-OKTA, the World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of Commerce, as well as Overseas Koreans Foundation have been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seas Koreans' society has established economic organizations earlier than government agencies and has been hosting the annual Korean business conventions. The representatives of such economic organizations as the World-OKTA and the World Federation of Korean Association of Commerce have been hosting business conventions since 1996. Second, being a governmental organization, Overseas Koreans Foundation has been hosting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s since 2002, but the participation of overseas Korean businessmen is decreasing gradually. Moreover, th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m are mainly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hina and Japan, including South Korea. This shows that there is a certain limit in sharing business information with Korean business circles that ar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in various countries or in acquiring information for the advancement of Korean companies in overseas markets. Implications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global Korean business network are as follows. First, Korean business convention, which is currently being held by various organizations, should be organized in an integrated way at least once every four years. Second, regional conventions, such as Global Korean

Business Convention in China, Asia Korean Business Convention, and Convention of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should be revitalized. Regional Korean business conventions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exchanges between Korean business and domestic companies, between home countries and countries of their residence, as well as promote cooperations among Korean business circles. Third, by actively utilizing online space, such as [www.hansang.net](http://www.hansang.net) operated by Overseas Koreans Foundation, Korean business circles in various countries should share business information and establish networks.

**<Key words>** Korean Business, Korean Business Network, The World-OKTA Convention, The World Korean Business Leaders Convention, The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